

오순절 후 열아홉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9월 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9 번 시편 9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John) 3:26-30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거룩한 주”	찬양대
설 교 Sermon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I Am Not The Chri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여 장”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14 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51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차지 않는다”며,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인색함을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주하기만 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신앙과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1: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말한 바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 3:28)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 am not the Christ but am sent ahead of Him.’” (John 3:2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9 (주일)	9/30 (월)	10/1 (화)	10/2 (수)	10/3 (목)	10/4 (금)	10/5 (토)
왕상	왕상2	왕상3	왕상4,5	왕상6	왕상7	왕상8	왕상9
갈	갈6	엡1	엡2	엡3	엡4	엡5	엡6
겔	겔33	겔34	겔35	겔36	겔37	겔38	겔39
시	시81,82	시83,84	시85	시86	시87,88	시89	시9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2수 오후7:30)	“Come!” (요1:35-51) – 한경준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10/5토 오전6:30)	“씨뿌림과 수확”(막4:1-9) – 김강석 장로

지난주일 (9/22) 말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막 9:30-37)

분명 말은 남아 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섬김” 또는 “섬기다”라는 말도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섬김” 또는 “섬기다”라는 말은 (단지) “종”이나 “노예”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섬김” 또는 “섬기다”는 말은 고상하고 겸양 있는 말처럼 들리게 되다 보니, “섬김”의 (본래) 원뜻은 사라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처럼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9:35)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별로) 거부감이 없지만, 2천년 전,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단순한 미사 어구 (Rhetoric)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참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섬김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고(막10:43-45), 2)둘째, “섬김의 원리”는 “더 낮아지기 위함”이며 (약4:6,10), 3)셋째, “섬김의 유익”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섬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